

Figure & Ground의 시각전달효과 연구 - 일러스트레이션을 중심으로

The visual communication effect on principle of figure & ground

문철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Moon, Chul

Dept.of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

● Gestalt psychology, Illustration, Figure & Ground

1. 머리말

언어소통을 축으로 복제성과 대중성의 두 좌표에 의해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는 현대적 의미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시각적 기호들을 사용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그것은 단순히 설명적 방식으로 그리거나, 기법만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도구적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그것에 내포된 의미와 컨셉, 아이디어가 중요한 핵심으로 다루어지며 개성있고 창의력이 넘치는 시각기호들이 작품들 속에서 나타난다.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사회의 양상들을 이미지기호로서 적절하게 나타내고 시각전달예술로서의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해 내기 위해서 확립된 방식이 아닌 다양한 조형적 실험과 재료의 연구, 그리고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오늘날 시각커뮤니케이션 환경은 복제라는 인쇄방식의 조건에서 컴퓨터, 멀티미디어 등의 시간적, 공간적으로 확장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러스트레이션에는 그러한 환경에 적응하고 대입될 수 있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그러한 다양한 시각기호들의 접근에 대한 연구 및 검토작업의 하나로서 게슈탈트 조형심리이론을 고찰할 것이다. 게슈탈트 이론의 근접성의 요인proximity, 유사성의 요인similarity, 공동운명의 요인uniform destiny, 부드러운 연속성의 요인continuation, 그리고 도형과 바탕의 전이성 요인figure-ground reversal 중, 도형과 바탕이론을 중심으로 살펴 지지각 원리가 일러스트레이션에 어떻게 활용되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한다.

2. 현대의 소통기호로서 일러스트레이션

일러스트레이션은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서부터 현대의 멀티미디어 미술영역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와 문화의 반영으로서 정치, 경제, 예술의 모든 분야를 기록하고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사 속에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일러스트레이션은 삽화, 또는 도해 그리고 출판, 편집의 보조적인 역할로서의 기능 이상의 독립된 의미를 지니며, 독자적인 커뮤니케이션 미술영역으로서의 확고한 위치를 가진다. 특히, 표현에 있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멀티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공간적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상상력의 세계를 펼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일러스트레이션은 미래의 시각환경을 만들어나가는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존재한다.

개별적이고 비언어적인 시각기호들을 독창적으로 구성하여 총체적 이미지로 형상화시킨다는 것은 점점 복잡다양해져가는 현대의 커뮤니케이션 환경 속에서 메시지를 효율적이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가장 선호하는 기호체계는 우리가 쓰고 읽고 말하는 언어language기호이지만 사진, 그림, 음악, 무용 등의 비언어nonverbal language 기호체계도 커뮤니케이션의 구조와 문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언어적 기호들은 언어기호가 표현하기 어려운 의미를 나타내는데 보다

더 유용할 수 있다. 일러스트레이션 역시 비언어 기호체계에 속하는 분야이다. 비언어적인 시각기호들을 사용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때, 형태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한 조형심리학이론과 연계한다면 그 전달효과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게슈탈트심리학 Gestalt psychology과 정보이론

형태심리학이라고 지칭하는 게슈탈트Gestalt이론은 형이나 형태로 번역되는 게슈탈트가 지각집단체화, 또는 지각체제화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에 의해서 지각되는 결과이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작용에 대해 오래전부터 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연구를 계속해 왔다. 인간의 눈과 두뇌가 지각의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및 그로 인한 분야들의 경향을 게슈탈트 심리학이라고 한다. 게슈탈트 이론들은 인간이 공통적으로 동일과 조화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지닌다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이미지는 부분들로 지각되기 전에 통일된 전체로서 지각된다. 즉, 인간의 눈과 두뇌는 부분을 보기 전에 전체를 먼저 본다의 것이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보는 사람의 지각적 능력은 하나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각각의 개별적 요소들을 일차적으로는 구별하지 못한다고 한다. 대신에 눈과 두뇌는 개개의 구성요소들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전체로 통합하여 보는 것이다.

형태심리학자들의 주장을 보면, 인간 내부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인간정신활동의 기본이며 학습된 것이 아니라 생득적인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지각체제화라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통한 게슈탈트의 작용 때문인 것이다.

이처럼 형태를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 조직화, 통합화해서 보려는 체제화를 결정하는 요인factor of configuration이 있다. 그러나 지지각이론에 치우친 게슈탈트는, 지지각 원리인 전체성을 강조하였지만 그것의 원인과 과정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였다.

시각물리학적인 망막에 나타나는 상visual field과 인간이 그것을 지각하는 세계visual world인 조형심리와의 구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정보처리이론이다. 인간은 지지각 범위라 불리는 망막에 하나의 상으로만 단독으로 지각하지 않으며 다른 감각기관을 통해 얻어지는 감각자료들이 통합하여 지지각 범위를 교정하기 때문에 인간은 지지각 체계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3-1. 도형과 바탕의 전이성 요인figure-ground reversal

바탕과 도형의 전이성 요인의 학습과정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덴마크의 심리학자 루빈E. Rubin이 그린 '루빈의 컵'이다. 검정 바탕에 놓인 흰 컵의 그림은 도형과 바탕의 관계를 잘 설명하여 준다. 컵을 도형으로 볼 경우 그 경계선은 컵에 귀속되어 검은 바탕은 단지 배경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러나 서로 마주보고 있는 두 사람을 보는 순간 그 경계선은 컵을 떠나 두 사

람에게 귀속된다. 이처럼 도형은 항상 바탕보다 시각적으로 우세하다.

우리의 주변환경에서 발견되는 모든 사물이 도형과 바탕으로 분리된다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그 사물이 객관적으로 우리의 주변환경 속에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도형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대상으로 인식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이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은 도형으로 지각되는 사물들로 한정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탕이 되는 부분의 중요성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인가가 주요한 도형으로 보여지는 것은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바탕 혹은 배경이 존재함으로써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4. 시네틱스적 발상과 도형과 바탕이론의 적용사례

바탕과 도형이 전이되는 시지각현상의 학습은 단순히 어떤 것이 도형이고 어떤 것이 바탕인가를 구분하는 위치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즉, 바탕과 도형의 이미지가 일러스트레이션에 적용될 경우, 보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요소들이 물리적, 심리적 혹은 상징적인 방법에 의해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게 되는데, 이는 바로 시네틱스적 사고에서 기인한다. 시네틱스란, '서로 다른 것들이 통일된 관계를 갖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아무 관련성없이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각요소들을 함께 재배치하여 새로운 형태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실제 도형과 바탕이론이 활용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형이 되는 요소와 바탕이 되는 요소는 서로 예측되는 주종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이며, 이 동등한 기호들을 재구성함으로써 전혀 다른 의미, 즉 독특한 메시지를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재구성된 이미지는 상투적인 관념을 깨뜨림으로써 매우 인상적이며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또, 이미지의 반전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은 주의 착점과 그것에서 기인되는 미움갖춤새가 도형과 바탕의 분리의 과정에 능동적인 지각자의 자세에 따라 느낄 수 있는 시각적 유희성은 또 다른 흥미를 촉발시킨다.

이것은 활용된 현대 일러스트레이션(그림1-2)과 실험작품(그림3-6)을 통해 증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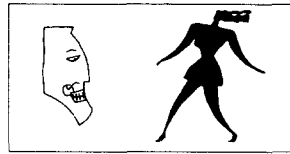
5. 맺음말

일러스트레이션에 있어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요구되는데 조형심리이론에 따르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의 활용으로 실험하였다. 일러스트레이션은 그 영역이 매우 확장되어 문화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조형미술분야에 널리 쓰이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런 이론을 연계할 가치가 있고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물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 준다.

특히 도형과 바탕의 전이성은 각각의 이미지들을 병형적 구조관계를 의미적으로 지속시키면서 시각기호를 사용해 활용적 설득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고, 그림에 활용하였을 때 이미지를 통해 느낄수있는 심리적인 시각적 유희성이 있다.

시각을 통한 흥미촉발과 그에 따른 배가되는 시각전달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또 두 개의 동등 이미지가 합쳐져서 더욱 효과적인 주제의 부각이 이루어졌을때 일러스트레이션의 합목적성에 알맞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제: 성희롱
소재: 도형figure이 여인,
배경ground이 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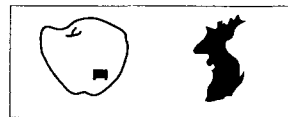
그림1



주제: 이스라엘 연극
소재: 도형figure-사람,
배경ground-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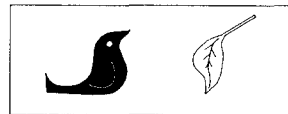
그림2



주제: 신토불이
소재: 도형figure-한반도,
배경ground-수입과일



그림3



주제: 자연보호
소재: 도형figure-나무,
배경ground-새



그림4



주제: 성희롱
소재: 도형figure-치한,
배경ground-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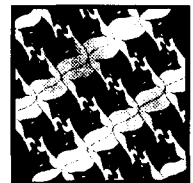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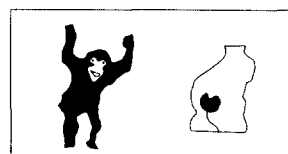


그림5



주제: 원숭이 궁둥이는 빨개
소재: 도형figure-원숭이,
배경ground-빨간궁둥이 원숭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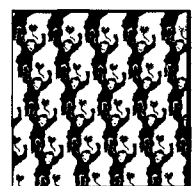


그림6